



**양계업 기반붕괴
공동화 현상을 막자**

금융위기로 시작된 구조조정이 정리하고, 빅딜, 외자유치, 기업퇴출, 공기업 매각 등으로 이어지면서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여러 차례 TV 토론이나 신문지상의 기사를 보면서 차츰 필요성을 이해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근로자들은 국가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흡수한다는 정책논리는 이해하지만 당장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처지를 생각하고 연일 파업이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구조정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된다.

양계인도 삼삼오오 모이면 양계업의 구조조정 에 대해 거침없이 대화를 하지만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만은 예외논리를 펴고 있다. 즉 나를 제외한 다른 양계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업 또는 전업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양계산물이 일단 소비보다 생산량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 과잉의 근원을 차단할 수 없는 체계가 또한 문제인 것이다. 금융업계처럼 강제로 퇴출을 시키지 않으면 부실이 부실을 불러 국가 금융체계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한계기업을 아깝지만 퇴출을 시키는 극약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양계업도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산물이

생산비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도 사태가 나도 시설자동화가 된 농장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 가동이 되게 마련이다. 이런 곳일수록 덤핑 출하가 성행하고 있다. 결국 건설한 농장도 덤핑출하의 덩에 걸려 같이 공멸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 논리로는 모든 양계인들이 다 같이 즐겁게 살 수는 없다. 자본이라는 힘에 의해 경쟁력이 없으면 자멸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처지는 자율경쟁의 생명인 원칙과 규칙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자율과 창의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길어지면 부상자만 속출하게 되어 있다.

부상 자체가 양계업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것과 일치된다. 일각에서는 생산조절은 더 큰 화를 부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대다수가 부채를 짊어지고 싸움을 해 보았자 누구도 승자가 될 수는 없다. 적어도 원가는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산이 감소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부문별로 양계인들이 모여 양계업 기반 붕괴 예방대책을 세우려는 자구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여름철 양계장 방역대책
천운만 바라면 안된다.**

우리나라 양계업은 중병이 걸린지 오래다. 어떤 질병이 어느 농장에서 언제 발병할런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가금티푸스가 만연되었기 때문에 계란의 생산조절이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어쨌든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계산상으로 집계하기가 곤란하다고 본다. 후유증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갈색산란계를 사육하는 외국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제대로 진단을 내리는 양계인은 아직 없다.

질병 차단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가장 쉬우면서도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이 방역이다. 출입구로부터 사육시설 내부에 이르기까지 통제라는 개념은 거의 실종된 상태이다.

특히 세균성 질병의 급증은 난계대를 제외하면 수평감염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볼 때 농장내로 외부에서 유입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질병으로 산물가격이 안정된다는 농담섞인 이야기를 두고 괜찮다고 해야 할런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손실을 계산하여 질병예방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농장은 어떤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옳은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질병은 엄밀히 말해 일시적인 가격 유지를 떠나 손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질병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열이면 여덟이나 아홉군데가 외부인이나 수송차량 출입시 통제하지 않는 실정이다. 방역의 기본을 지킨다는 것을 거추장스럽다거나 겸연쩍어 하는 마음가짐이 문제이다.

질병이 상존하는 농장일수록 이같은 상황은 더 확연한 것이 사실이다.

남의 농장을 출입하는데 있어 질병원의 유입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문수칙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예의보다는 늘 그렇게 하였고 때문에 기본적인 소독조차 귀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남아 있는한 방역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열마리의 닭을 키워 20~30%가 질병으로 폐사하고 산란율이 70%를 유지했다면 전체 성적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일곱 마리를 키워 80%의 산란율을 유지케 하였다면 산물가격은 안정되고 손실액이 없어 경제적으로 볼 때에 이보다 더 큰 이득이 어디에 있겠는가를 새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강제환우 경제적 가치 소득차원에서 재검토 필요

계란업이나 종계업을 하는 양계인 중 경제일령 이후의 환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엄격하게 계산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 조사된 자료는 없지만 그간의 정황으로 본다면 별로 없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처럼 계란값이나 실용계 초생추 가격이 불안정한 곳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난질 또는 난각에 따라 노계를 도태하는 것이 아니고 계란값이나 병아리값의 흐름에 따라 강제환우를 하게 된다.

대개 외국은 무창계사라 할지라도 강제환우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제환우를 실시하지 않

는 양계업은 이득을 낼 수가 없다고 단언할만큼 강제환우가 보편화 되었다.

특히 무창계사는 더 그러한 추세이다. 가금티푸스가 창궐을 하는 것도 강제환우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업계에서는 갈색계가 살모넬라에 항병력이 적어 그렇다고 하지만 강제환우를 비교적 실시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가금티푸스 등 다른 질병의 발병율이 낮은 것으로 볼 때 더 의심의 여지가 많다.

계란의 경우 등급 유통이 강제환우를 실시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유통방법을 중량으로 서서히 바꿀 필요도 있다. 종계도 추백리나 마이코플라즈마, 가금티푸스가 검출이 되면 병아리 판매 자체를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강제환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양계인들이 그간 산물시세에 따라 맹신적으로 강제환우를 선호해 왔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손실을 미처 생각치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해도 질병소굴에서 있는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가금티푸스와 뉴캐슬 등 발병되면 피해가 큰 질병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양계업을 하는 것보다 사육수수도 줄이고, 계획했던 것만큼 생산성이 유지되면 오히려 천운만 바라는 것보다 알찬 경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갈색계가 많다고는 하지만 가금티푸스가 창궐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의 하나가 강제환우가 아닌가 하여 다같이 생각을 하자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양계**